

패닝



글 전수영 기자

# panning

스페인 소녀 인스(11·가운데)와 마르(9)는 왜 도심 속 거리를 달리고 있을까? (사진) 무엇이 이들을 야생마처럼 내달리게 했을까? 사진기자는 왜 이들의 뒤통수에 주목했나? 이런 광경은 사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세상 어느 길모퉁이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이다. 팬데믹 이전의 세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런 사소한 모습까지도 특별한 사진으로 만들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는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내부통제로 이동 제한을 넘어 개인의 외출을 제한하는 '우한식 외출제한령'이 시행됐다.

사진은 3월 14일 시작됐던 약 6주간의 록다운(lock down·봉쇄) 끝에 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된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 도심 속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다. 외신(AFP)은 4월 26일 이 사진을 발행했다. 스페인이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한 날이다. 14세 이하 아동은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정해 하루 한 차례, 거주지에서 반경 1km까지 외출이 가능해졌다. 6주 만의 외출로 봄날의 신선한 바깥바람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이날 아침 기자는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라는 취재를 위해 바르셀로나의 한 가정을 섭외한 것 같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족의 외출 준비부터 인

적이 드문 거리에서의 배구 놀이와 뽀박질, 산책하는 모습 등도 있다. 그 가운데 소녀들의 뒤통질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움직이는 소녀를 제외한 배경이 흘러가는 듯 속도감 있게 촬영됐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녀들의 빠르게 움직이는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다. 정지된 모습이 아닌 거리를 내달리는 소녀들의 움직이는 질감이 그대로 표현됐다. 사진을 보는 우리는 동영상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을 받는다.

이 사진을 찍은 기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기자는 촬영 기법의 하나인 '패닝'(panning) 기법을 썼다. 패닝은 동체(動體)의 속도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1/15~1/60로 세팅해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사진 속에서 동체는 멈춰 보이고 고정된 배경은 흘러 동체의 속도감이 표현된다.

의도하고 생각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건 뛰어가는 소녀들에 맞춰 위·아래로의 흔들림 없이 진행 방향과 직선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 특히 눈은 흔들림 없이 포커스가 맞아야 사진을 살릴 수 있다. 이는 동체의 얼굴과 카메라의 이동 속도

한거리



스페인 봉쇄 조치 일부 완화...야호~ 신난다 스페인 정부가 전국적 봉쇄 조치 선언 6주 만인 26일 부모와 동행할 경우 14살 이하 어린이가 하루 한 시간 동안 거주지 반경 1km까지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마스크를 쓴 두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신나게 달리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8일 전국적 봉쇄 조치의 구체적인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로셀로나/AFP 연합뉴스

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된다. 패닝으로 얻는 사진은 말 그대로 운칠기삼(運七技三)이다. 그만큼 얻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사진처럼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면 기자는 자신의 의도를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냥 정지된 사진이 아닌 배경의 속도감이 해방감으로 읽히는데, 이야말로 눈으로 맞볼 수 있는 사진의 맛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한 스페인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호텔과 소규모 상점 개장과 식당, 바의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조치 추가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역은 기존 봉쇄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바르셀로나의 어린이들이 1시간 외출에 만족해야 하는 기간은 좀 더 길어질 듯싶다. 우리의 사정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그라질 듯 보이던 코로나19가 클럽 발 확진자 증가로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뉴욕 메츠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소환되는 이유다. ❶